

추천의 말

박 영 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이사장

자기의 삶을 진솔하게 펴낼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내가 만난 이 책의 저자인 염태영은 성품이 온유하고 매사에 성실하며 무엇보다도 균형 감각이 특출한 것이 남다르다. 또한 그는 책임감과 추진력이 강한 민주적인 지도력을 지닌 일꾼으로서 오늘의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준비된 지도자이다.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에서 지구를 살리기 위한 행동강령인 <의제21>이 합의된 바 있다. 이 행동강령에서는 각 국가의 지역사회로 하여금 살기 좋은 자기 고장 만들기 전략으로서의 <지방의제21>의 수립을 권유하고 있다.

내가 저자를 알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의제21 수립 논의과정에서였다고 기억한다. 그 때가 1995년도이고 보면 우리는 불과 십년지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백년지기와도 같은 것은 그가 지니고 있는 믿음직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일이든 중복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일단 말으면 틀림없이 해내는데서 동역자들은 그를 신뢰한다.

저자와 함께 일하면서 내가 늘 부러워한 것은 그가 수원에서 태어나서 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서울대 농과대) 과정까지 마치고 자기의 고향인 수원에서 그 지역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점이다. 월남하여 뿌리를 잃은 나로서는 자기 고향에 뿌리를 내리고 그 고향을 위해 일하고 있는 저자가 행운아라는 생각을 한다.

저자는 대학 재학 시부터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학생운동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며 사회변혁을 꿈꾸었고 수원지역의 야간학교 교사 등 자원봉사를 통해 일찍부터 수원지역 발전에 가담한 수원이 낳은 일꾼이다.

저자는 대학 졸업 후 10여 년 동안 삼성, 미원, 두산그룹 등에서 기업의 경영문화와 접하면서 조직사회에서의 체험과 훈련을 키웠다. 그 후 시민사회운동에 투신하여 경실련의 환경개발센터와 녹색연합 등에서 활동하면서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창립하고 수원의 환경을 지키는 일에 앞장섰다. 수원천 복개반대 및 자연형 하천복원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실문화개선운동에서 수원이 메카가 되게 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에 이른다.

그의 환경과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은 당위성만을 주장하는 운동의 일원으로 머물지 않기 위해 환경기술사 자격을 취득하여 도시문제 전문가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환경 및 도시계획, 국토정책 등 주요 심의 및 자문기구에 적극 참여하면서 지역사회문제 또는 부분적인 문제를 전체적인 행정체계와 연계하여 해독하는 기량도 키우게 된다.

1995년 시작된 유엔 산하 전 세계 지자체들의 민,관협력으로 이루어지는 21세기 친환경 도시운동인 <지방의제21> 수립과정에서 그는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경기의제21)의 사무처장으로서 그리고 2000년도에 설립된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운영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서 2004년까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의 발전을 주도하였다.

그러한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2000년도에 구성된 <대통령직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협의회의 총무위원으로, 이어서 참여정부 출범 시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사회, 문화, 여성분과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약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환경운동계의 추천으로 청와대의 환경비서관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저자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장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국제적인 활동을 하든 국가적인 과제를 수행하든 그의 성취기반이자 출발점인 그가 태어나서 자라고 공부하고 일하고 거처하고 있는 수원을 한시도 잊지 않는다는 점이다. 살기 좋은 수원, 세상에서 으뜸가는 도시 수원을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이다. 그리고 꾸준히 그 일을 해오고 있다. 그가 제1회 KBS 지역대상에서는 환경부문본상(1996), 대통령표창(2001), 경기도의회 의장수여 공로패(1997) 수상과 그리고 일본사회평론사의 '21세기한국인' 8인에 손석희 아나운서 등과 함께 선정(2000), 시사저널의 '경기도를 움직이는 사람들'에 선정(2006) 되는 영예는 그의 지역사회를 위한 수고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의미한다.

브라질의 <크리티바>시를 세계의 선망의 도시로 만든 전 시장인 자이메 레르네르를 존경하고 있는 저자의 목표는 수원을 <크리티바>시나 세계의 이상향인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브로크에 버금가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그의 꿈속에는 이미 확실한 모델이 자리하고 있어서 실현이 무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970년 초에 <성장의 한계> 보고서에 이어 20년 후인 90년 초에 <한계를 넘어서> 그리고 최근에 성장의 한계 발표 이후 30년간의 지구환경 변동에 관한 <성장의 한계 개정판>을 내놓은 저자들도 주장하고 있듯이 21세기의 도시는 지속가능발전을 외면할 수 없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구환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의 인류의 행동양식의 선택이 지구의 앞날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경고를 늦추지 않고 있다. 지속발전가능한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환경, 문화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 일을 성취해내는 것은 그 일을 해낼만한 인재를 정책결정자로 선택하는 데서 출발된다. 수원의 경우 저자와 같은 준비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며 기회는 왔다.

수원시민들이 오는 5월 31일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만 남았다. 바라기는 이번에 출판되는 저자의 책에 담긴 그의 진솔한 삶의 향기가 바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내가 만난 염태영은 진솔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도덕적으로 투명한 사람, 삶을 긍정적으로 살고 있는 건실한 젊은 지도자로서 수원을 위해 그가 꾸고 있는 꿈을 확실히 성취해낼 준비가 되어있는 지도자라는 것이며 내가 함께 일하면서 확인한 단면을 책의 추천의 말로 대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으면 한다.